

SM, 4월 수입가격 21.9% 하락!

한국은행, 석유화학 및 화학제품 주도로 4개월 연속 상승세 반전

4월 수입물가가 석유화학 및 화학제품의 주도로 전월대비 4.6% 내리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에서 내림세로 돌아섰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3년 4월 수입물가는 국제 원유가격 하락과 수요부진 등으로 원자재(-5.3%), 자본재(-0.7%), 소비재(-1.9%)가 모두 하락하면서 3월보다 4.6% 하락했다.

2002년 4월과 비교해도 2003년 들어 처음으로 3.5% 하락세를 나타냈다. 4월 환율효과가 제거된 계약통화기준(외화표시 수입가격)으로는 4.1% 하락한 셈이다.

중간원자재는 국제유가 하락 및 미국 경기회복 지연 전망 등으로 섬유제품(-1.8%), 석유제품(-20.3%), 화학제품(-2.3%) 등이 내림세를 보여 전월대비 2.9% 하락했다.

석유제품은 원자재인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나프타 -25.5%, 벙커C유 -13.5%, 프로판가스 -13.6% 등이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했고, 화학제품(-2.3%)은 공급감소로 가격이 소폭 상승한 초산, 아크릴산 이외의 대다수 화학제품이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로 2.3% 하락했다.

프로필렌 -15.6%, EG -9.3%, 자일렌 -7.5%, 향생물질제제 -5.3% 각각 감소했으며, SM 수입가격은 무려 21.9% 감소를 기록했다.

섬유제품은 원재료 가격하락으로 면사, 면직물, 화학섬유 직물, 모직물 등이 하락했다.

또 금속1차제품은 수요감소로 빌렛 등이 하락한 반면, 중국의 생산감소 및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슬랩, 합금철 등이 상승했으며, 기계부품은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감소 및 원화환율 하락으로 컴퓨터 부품, 집적회로, 자동차 부품 등이 하락했다. <조인경 기자>

수입단가 등락률(2003.4)

(단위: %)

구 분	등락률	주요 품목
중간원자재	-2.9	
섬유제품	-1.8	면직물(-5.9), 화학섬유직물(-3.1), 모직물(1.8)
석유제품	-20.3	나프타(-25.5), 벙커C유(-13.5), 프로판가스(-13.6)
화학제품	-2.3	자일렌(-7.5), EG(-9.3), 프로필렌(-15.6), SM(-21.9), 향생물질제제(-5.3), 초산(5.9), 아크릴산(4.3)
금속1차제품	1.0	슬랩(12.0), 합금철(4.0), 특수강봉강(4.7), 빌렛(-4.0)
기계부품	-0.7	컴퓨터부품(-1.3), 집적회로(-0.6), 자동차 부품(-0.7)

† 전월대비

<Chemical Journal 2003/05/17>